

지역 소식 통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

출산 · 육아지원정책 제안

부안군의회 김원진 의원이 3월 25일 열린 제3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부안군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출산을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원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수치 개선이 아닌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안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50 탄소중립
향한 조림사업 박차

정읍시가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18ha 규모의 조림사업에 나섰다.

시는 올해 총 8억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편백, 백합나무, 낙엽송 상수리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 20만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이번 조림은 양질의 국산 목재를 공급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림사업은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수확한 뒤, 산림청이 지정한 목재생산용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산주는 전체 조림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 동력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시는 경제수 조림 85ha를 통해 국산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산사태나 산불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큰나무 조림 20ha도 함께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사회 · 대학 상생 발전 본격화

부안군-전주대, RISE 사업 업무협약... 지역 자원과 연계 연구 · 교육 모델 개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군과 전주대는 지난 24일 부안군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군과 전주대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산학 협력 기술 개발, 창업 육성, 교육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군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전주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연구 · 교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과 전주대가 협약을 체결한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산업 · 교육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군과 전주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 기반 확대, 스마트 농업 · 식품산업 활성화, 관광산업과 연계한 생활안구 창출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풍부한 농업 자원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및 식품산업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육성, 전주대는 첨단기술과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을 담당하며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R&D) 지원, 푸드테크 ·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청년 인재 유입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광 · 레저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과 전주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주대의 연구 역량과 부안의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단순한 교육과 연구 협력을 넘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 5년간 이어질 협력이 부안과 전주대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군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춘 실용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 삶의 질 향상, 현장 중심 행정” 강조

정읍시 유호연 부시장, 관광 · 산업 등 주요사업장 31개소 방문

정읍시 유호연 부시장이 시민 불편 해소와 현안 해결을 위해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현장 점검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유호연 부시장은 정읍시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장과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민 불편 사항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산후조리원 △고부농공단지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영광동 환경기초시설 △내장산 문화광장 권역 △북면 제1일반산업



단지 등 총 31개소로, 각 사업장의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완책 마련에 집중했다.

유호연 부시장은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내가 살고 자란 정읍을 더욱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총 78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전북자치도에서는 군을 포함한 7개 시 ·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은 전북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광역 · 시 · 군 · 구 등 4

개 평가군으로 나눠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세부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상위 30%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 · 행안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실천과 부안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제3회 고창 벚꽃축제’ 포스터 · 주요프로그램 확정

고창군, 4월 4~6일 석정온천관광지 일원서 풍성한 콘텐츠 구성

고창군의 대표적 봄맞이 축제,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대됐다. 봄’이 포스터와 주요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고창벚꽃축제는 오는 4월 4~6일 고창군 석정온천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더욱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 위해 힘쓰고 있다. 1km에 이르는 고창 벚꽃 터널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경관 조명이 더해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관 예

정인 석정 웰파크 호텔과 어우러진 석정 외정공원의 야경은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축제 첫날인 4월 4일 전야제에는 최근 MBN 한일 가왕전 MVP로 선정되어 화제를 모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축하 공연을 펼친다.

이어 둘째날인 4월 5일 개막식에서는 봄과 벚꽃의 감성에 잘 맞는 인기 가수 케이윌과 케이시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푸드존과 플라마켓,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 안내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벚꽃축제는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회 고창 벚꽃축제는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gochang.go.kr)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챌린지숍 입주자 31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 공간인 ‘청년창업 챌린지숍’ 입주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 챌린지숍은 정읍시 태평2길 21에 위치해 있으며, 창업 사무실 8개소를 비롯해 세미나실, 미팅룸, 공동시설, 옥상 휴게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갖춘 공간이다.

모집 대상은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자, 관련 단체 등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이전 예정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공간과 기본 사무집기, 공용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총 2팀이 선발될 예정이다.



입주보증금은 연납 시 61만 5600원, 반기별 납부 시 30만 7800원이며, 임대료는 m당 7500원으로 연 1회 산정해 부과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 사업계획, 창업 의지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